

# 사랑의열매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ISSUE **157**   
2020 MAY



모두의 나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을  
돌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부부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까지  
엑소 수호

#### 내 인생의 한마디

3대 전 가족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한 문화유산 '한옥'  
백원기 대표와 가족들

#### 나눔 이슈

가수 이한철과 뮤지션 17명이  
함께 부른 국민 응원송

#### 착한기업

광주은행과 사랑의열매가  
써 내려간 '사랑+사랑=나눔' 공식 비결

#### 특별부록

코로나19 특별모금배분 이야기



##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이자 희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생활은 쉽게 제자리를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들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사랑의열매도 힘든 이웃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보내주시는 정성을 모아 사각지대 없이 고루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더욱 단단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고마워하게 되겠죠. 어려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지지지 말고 모두 다 힘내세요.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chest.or.kr



###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0g

### PLUS EVENT

**책 뒤표지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을까요?**

**참여방법** 숨은 그림을 찾아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당첨자 선정** 인증샷을 올려주신 5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flower.fall



♡ 👁 🗑 ... 📌

꼭 필요한 분을 위해 썼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목함 지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DMZ 지뢰 폭발 사건 등등 나라를 위해 일하시다가 피해 입은 장병분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육군위국헌신전우사랑기금  
#사랑의열매 #정기후원

miyoung\_3338



♡ 👁 🗑 ... 📌

#레인보우챌린지\_오늘은 #워터비즈 풍선 하나로 하루 종일 놀겠어요ㅎ 풍선에 다양한 표정 그려보고 따라 하기^^ 오늘도 알차게 놀았다~♡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힘도 들지만 우리 아이랑 온종일 같이 있으니 좋은 점도 있네요^^  
그래도... #코로나야좀지나가주렴 #우리모두괜찮아요we\_are\_ok  
#코로나19 #코로나19뿌셔뿌셔 #사랑의열매 #아이랑하루예한키트씩 #신나고재미있게 #함께하는놀이 #사랑해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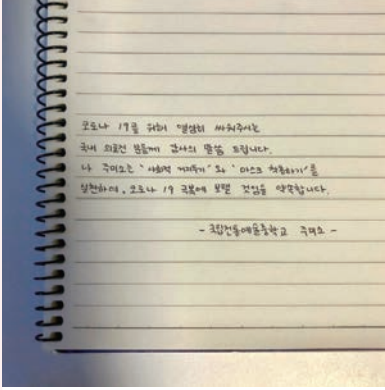
seony.lim



♡ 👁 🗑 ... 📌

코로나야있잖아나는 이미 두 달 전부터 학교 갈 생각으로 준비 다 했는데 너는 왜 갈 생각이 없어? 나 내 방에 꼭 차박해서 온라인 개학 안 하고 가방 메고 교복 입고 학교 가서 개학하고 싶어 그니까 빨리 가주면 안 돼?! 나 지금 동복 한 번도 못 입어보고 하복 사게 생겼단 말이야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사랑의열매 #학교 #가고싶다 #코로나가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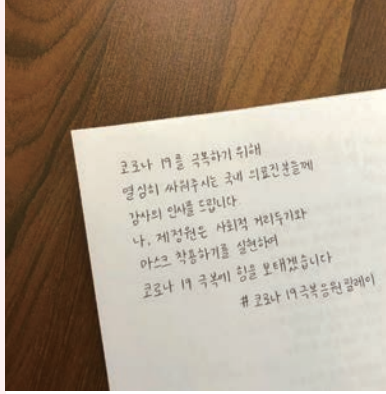
\_\_\_m\_i\_s\_o\_\_\_



♡ 👁 🗑 ... 📌

[HA 8th SC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응원 릴레이]  
\*\*중학교\*\*의 지목을 받은 \*\*중학교\*\*입니다.  
이 '코로나19 극복 응원 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함께 할 다음 주자를 지목합니다.  
@sujin\*\*\*\* @taehye\*\*\*\* @jaehun\*\*\*\*  
#코로나\_19\_극복\_응원\_릴레이 #사랑의열매

wp\_.04



♡ 👁 🗑 ... 📌

\*\*\*고등학교\*\* @yam00ji\_\*\*\*\* 에게 지목을 받은 \*\*\*고등학교\*\*입니다.  
이 '코로나19 극복 응원 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히 포스트에 응원 문구 몇 줄 적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전염병과 싸워주시는 우리나라의 영웅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캠페인을 함께 할 다음 주자를 지목합니다.  
\*\*\*\*고등학교\*\* @623\_\*\*\*\*  
\*\*\*\*고등학교\*\* @hao\*\*\*\*  
\*\*고등학교\*\* @minse\*\*\*\*  
#코로나19\_극복\_응원\_릴레이 #사랑의열매 #인천하늘고등학교

### #나눔태그

####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CONTENTS



## 사랑의열매

vol. 157 2020. 05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0년 5월 / 통권 157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http://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등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 \_ C-SDGs 연계 배분 사업  
④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04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을 돌봅니다

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10 커버스토리  
멈춤 없는 선한 영향력, 엑소 수호

14 내 인생의 한마디  
3대 전 가족이 아닌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한 문화유산 '한옥'  
백원기 대표와 가족들

18 나눔 이슈  
가수 이한철과 뮤지션 17명이 함께  
부른 국민 응원송  
코로나 19라도 괜찮아 잘될 거야~



20 나눔리더

나눔리더에 가입한  
뷰티 크리에이터 새벽

22 착한기업

광주은행과 사랑의열매가 써 내려간  
'사랑+사랑=나눔' 공식

26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3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모아온 용돈 전액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한 여덟 살 김인우 군

32 동네방네

경북 사랑의열매

34 나눔말 사전

시민과 함께 성평등 언어로 바꿔요

36 문화로 보는 나눔

예술로 만나는 따뜻한 이야기

38 나눔현장 1

심재선 인천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39 나눔현장 2

SK(주) C&C와 블록체인 기반  
공동 사업 협약 체결

40 전국 지회 뉴스

51 이달의 아너

52 독자 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을 돌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일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랑의열매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을 돌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각나눔기관 일러스트조성희



2020년에는 매달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발전목표인 C-SDGs의 16개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해 주요 배분 사업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 달은 10번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중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소개한다.



### 화상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성 사업

화상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환자뿐 아니라 화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는 외상이다. 특히 화상 치료는 입·퇴원을 반복하며 장기간 이루어지므로 보호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화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 한림화상재단과 사랑의열매는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화상 환자 돌봄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입원 시기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함께가족요 프로그램’, 장기간 화상 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휴 프로그램’, 입원과 퇴원 이후 돌봄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가족 역할, 사회 기술 훈련 방법 등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화상 치료 단계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화상 경험자를 위해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과 웹진도 발간한다. 또 돌봄 가족 모임인 화상 커뮤니티 지지 그룹 조성 등을 통해 그들이 내적·외적 고립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화상 경험 환자 고용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화상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지역사회에 파견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화상 경험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직장 생활로 환자를 병원에 혼자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있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봐 불안했는데, 간병인 지원을 받아 걱정이 덜었습니다.”

“간병 지원 덕분에 다시 식당 문을 열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언젠가 꼭 어려운 분을 돕겠습니다.”

- 휴 프로그램을 통해 간병인을 지원받은 돌봄 가족

“남편 사고 이후로 응급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할 정도로 두려움이 컸습니다. 화상 사고가 발생한 게 우리 가족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을까 부정적 생각만 들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부담도 덜고, 트라우마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림화상재단과 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립니다.”

- 함께가족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돌봄 가족



화상 치료 단계별로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돌봄 가족들

## 2020년 복권기금 저소득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 지원 사업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또한 이용 아동의 돌봄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재난 취약 계층 아동이 밀집한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복권기금 20억 원을 투입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협력해 코로나19 안전 강화 지원비(기관당 46만 원)를 전국 지역아동센터 4,140개소에 전달했다. 안전 강화 지원비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위생용품, 결실 우려 아동을 위한 식료품 구매비로 사용했다.

“아이들 가정에 식료품을 배달하면서 아이들의 생활 상태를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아동과 긴급 돌봄으로 센터에 오는 아동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하늘꿈이자라는집관계자

##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람 중심 실천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GOOD LIFE'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란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체 공격, 언어 공격,



참여자들의 도전적 행동 감소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자해, 소리 지르기, 울기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단순 보호에 목적을 두거나,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업을 선보였다.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PCD(PCD=Person Centered Description/사람중심지원 기반)를 활용해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도전적 행동 감소를 지원한다. 또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비장애인 서포터를 통해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도전적 행동 감소, 참여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및 양육 기술 증진, 도전적 행태를 지닌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유도 등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냈다.

“아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성이나 고집이 조금 줄어들고, 함께 외부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기를 바랐습니다. 아이의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 응용행동분석) 행동 치료에 참여한 이후 물건 집착이 줄어들었고, 조절이 가능해진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는 아이 욕구에 따라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등 지역사회 활동 폭이 넓어졌습니다.”

- ABA 행동 치료 참여 발달장애인의 양육자



내부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 목포의 지역아동센터



## 농촌 지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기반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화 사업

우리나라는 7년 뒤인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광범위한 돌봄 사각 문제가 발생한다. 전북 서남권에 위치한 김제시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인구 감소와 뚜렷한 인구 유입이 없어 초고령화 지역이 되었다.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길 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자치+돌봄+재생 통합협력모델’ 사업을 시작했다.

김제시 19개 행정구역 중 김제시내지역과 왕복 거리가 가장 멀어 복지 서비스 취약 지역인 금산면에서 커뮤니티 케어 모델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 재생 뉴딜 사업, 마을 밀착형 커뮤니티 케어 마을사무소 설립, 주민자치,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또 마을별 건강·문화·여가 지원 사업과 경로당 활용 주민 공동체 사업인 마을공동밥상, 마을일자리사업 찾아가는 방문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진행 중인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거점 마을 단위 커뮤니티 케어 모델화 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찾아가는 방문 건강 및 의료 서비스로 통합 돌봄을 하고 있다.

“벌써 다음 달 마을밥상이 기대가 되고, 더욱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고루 영양을 갖춘 맛있는 밥을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건 너무 적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영양플러스 마을공동밥상 참여 주민

“경로당에서 하는 운동 시간이 기다려지며, 서로 웃고 떠들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 건강 프로그램 참여 주민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를 진행한 농촌 재생 뉴딜 사업

## 학대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사업

2018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1,835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에 달한다. 장애인 학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단순한 피해자 지원 기능을 뛰어넘는 단계별 지원 기능을 구축했다. 현재 서울 등 세 곳에 학대 피해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생계비와 기초 생활 물품 지원 등 위기 지원부터 주거, 의료, 법률, 심리, 후견·신탁, 취업까지 통합 지원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다. 또한 지역 내 자립을 기반으로 한 자립 주택을 운영하며, 작업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주택 계약 지원, 사회 참여 활동 연계 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5월 학대 피해 장애인들과 함께 떠난 경북 청송 덕천마을 여행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가영 라이프케어 서포터즈가 학대 피해 가정을 방문해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노인 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지원 사업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라이프케어 서포터즈를 학대 피해 가정에 파견해 피해 노인과 행위자, 가족 구성원의 특성 및 문제 요인·육구 등을 파악해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피해 가족에게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 내 학대 위험 요인을 줄이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전문 기관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mini interview

####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화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작년 8월부터 라이프케어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여덟 가족의 어르신을 따스한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과 그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에는 위험 요소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꼭 좋은 변화가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길을 나서곤 했습니다. 어르신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관계의 삶을 원하고, 학대로 인해 위기가 있었지만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려는 훌륭한 가족이 꽤 많다는 사실을 가정을 방문하면서 항상 느꼈습니다.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훌륭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서인지 저는 큰 배움을 얻었고, 그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르신과 가족에게 힘과례 질리언스 보석 광석을 찾아드리는 서포터즈가 되고 싶습니다.



온누리 추억 쌓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부모 가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중증중복장애 아동 및 성인,  
그 가족의 자휴안(自休安) 실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윈더 Mom, 윈더 Kids'**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중증중복장애 자녀와 가족의 자유로운 삶과 편안한 심, 즉 자휴안(自, 休, 安)을 실현하기 위해 윈더 Mom, 윈더 Kid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 야간은 물론 집안 내 대소사가 있거나 엄마의 출산과 산후조리 등 여러 상황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해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부모가 짊어져야 했다. 이에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평일(주·야간), 방학, 주말(주·야간), 숙박 돌봄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덕분에 부모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 감소는 물론, 부모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안정감을 찾고, 평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비장애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하고 싶은 활동을 같이 하는 등 '자휴안'을 실현할 수 있어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장애 자녀 또한 다른 사람의 돌봄 지원을 받으며 관계가 확장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등 긍정적 모습을 보여줬다. ❀

**한부모 가족 자녀 돌봄·교육 프로그램 지원  
'KOGAS 도담도담 교실'**

한부모 가정은 홀로 경제활동과 가사, 양육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하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담감도 크다. 종종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에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후원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 돌봄 교육 서비스를 통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주·야간 보호 돌봄과 교육을, 취학 아동은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학업 및 진로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자녀 심리·정서 교육과 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온누리 연결망 서비스,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돌봄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출산 등 부모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든든한 힘이 되는 긴급 돌봄 서비스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부부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까지

# 멈춤 없는 선한 영향력, 엑소 수호



매년 연말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이어온 엑소 수호가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부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그리고 <사랑의열매> 5월호 표지 모델로까지 나섰다. 자신과 같은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는다면서 말이다. 온기 가득한 수호의 선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글강은진 사진박충렬

## 기부 누적 금액 1억 돌파, 아너 가입까지

더없이 화창한 5월,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에 엑소의 리더 수호가 나섰다. 코로나19로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사회 분위기 속에 수호는 흔쾌히 표지 모델로 동참해주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데뷔 8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호의 진심이 충분히 전해지고도 남는다. 게다가 표지 촬영 현장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까지 동시에 이루어져 더욱 뜻깊었다. 표지 촬영을 시작하기 전,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신혜영 자원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호는 가입 서류에 사인했다. 수호는 2013년 이후부터 매년 연말이면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기부해왔다. 또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해 누적 금액 1억여 원을 훌쩍 넘겼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그런 가운데 진행됐다.

“이미 많은 선후배 연예인들이 가입을 하셔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죠. 기부 누적 금액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정말 좋고 웬지 뿌듯하더라고요.”

## 어릴 때부터 익숙한 사랑의열매

수호는 2013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기부해왔다. 엑소가 2012년에 데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예 활동 초창기부터 나눔을 시작한 셈이다. 기부를 시작한 이유도, 사랑의열매와의 첫 인연도 궁금했다.

“어릴 때부터 이웃 돕기 방송 같은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방송국에 전화해서 기부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화면에서 사랑의열매를 본 것 같아요.(웃음) 또 저희 어머니가 크고 작은 봉사도, 기부도 많이 하셨는데... 꼭 사랑의열매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자연스럽게 익숙한 이름이었죠.”

기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호는 거창한 답보

“

뉴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의료진분들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으며, 응원하고 싶었어요.

코로나19 기부로 시작해 이렇게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까지 하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

다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간결하게 답했다. 어려서부터 기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작은 기부도 경험하며 자란 이야기를 들으니 그에게 기부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였다. 그렇기에 데뷔 후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진 다음 바로 기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말이다.

“팬분들로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엑소 음악을 듣고 힘을 내 대학에 진학했다든지, 회사에 입사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요.”

### 데뷔 8년 만에 첫 솔로 앨범 <자화상>

음악 이야기를 할 차례다. 수호는 데뷔한 지 8년

만에 첫 솔로 앨범 <자화상(Self-Portrait)>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수호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밴드 사운드 기반의 총 여섯 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곡 ‘사랑, 하자(Let’s Love)’는 서정적 멜로디와 따뜻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모던 록 장르의 곡이다. 이미 한티차트, 신나라레코드, 예스24 등 각종 음반 차트에서 주간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타이틀곡 ‘사랑, 하자’도 다운로드 차트 1위에 올랐다.

“자화상이라는 앨범명처럼 8년간의 제 자신을 담은 작품이에요. 타이틀곡 ‘사랑하자’는 모든 사랑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룹에도 사랑하자는 내용을 담았죠. 따뜻하게 혹은 먹먹하게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수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수호의 진심이 그만큼 잘 전해지는



표지 촬영에 앞서 수호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진 뒤 김연순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앨범이다. 수호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첫 솔로 앨범을 랜선 팬 미팅으로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영상 통화 팬 미팅을 했지만, 그만큼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랄까. 가수와 팬의 만남이 아니라 친하게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 같았어요.”

수호는 영상 통화 화면 뒤로 팬들 방에 있는 엑소 포스터나 앨범 등을 직접 볼 수 있어 무척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금 알 수 있었다면서 말이다.

### 작은 움직임이 만드는 큰 영향력

수호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로 재능 기부까지 해주어 많은 이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수호는 작은 일이라고 할 뿐이다. 큰 결과를 기대하게끔 하는 작은 일 말이다.

“제가 사진을 찍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뭐랄까... 대단한 일이나 큰 행동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의 이런 작은 행동이 모이고 모이면, 어떤 큰 물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부도 액수를 떠나 작은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 만드는 큰 행동, 바로 수호가 생각하는 나눔이다. 수호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별 기부 당시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의 행동하는 진심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는 힘이 들 때 자신을 아끼는 지인들과의 대화와 팬들과의 만남, 그리고 기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기부를 통해 제가 번 돈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기부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고, 얼마나



“

제가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표지 모델로 나서서 재능 기부를 하는 건 그저 작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저의 작은 행동이 모이고 모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계속해서 작은 움직임을 이어가는 이유죠.

”

많은 일을 해결했는지 보면서 ‘아, 내가 번 돈의 가치가 이 정도구나’ 깨닫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아끼게 되고요.”

수호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할 동력도 얻었다고 했다. 수호의 바른 인성이야 이미 유명하지만, 나눔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으니 그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계속해서 작은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수호의 멈춤 없는 선한 영향력에 그저 찬사를 보낼 뿐이다. 5월을 온기로 가득 채우는 남자, 수호다. 🍀



3대 전 가족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문화유산 '한옥' 백원기 대표와 가족들

“그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야말로 아들, 손자, 며느리 3대가 모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가족이 있다. 그럼에도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단다. 따뜻한 미소가 꼭 닮은 문화유산 '한옥' 백원기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충북을 대표하는 기부명문가**

충북 사랑의열매 기부명문가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한 가족이 3명 이상 가입할 경우 주어지는 명예로운 이름이다. 문화유산 '한옥'의 백원기 대표(이하 백 대표)와 가족들은 기부명문가 충북 2호다. 하지만 고령의 노모부터 대표 부부, 아들과 며느리까지 3대가 모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것은 충북 최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이다. 백원기 대표는 2017년에 부인 박종미 씨, 아들 백규현 씨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이후 2년 뒤인 2019년에는 백 대표의 어머니 김복순 여사와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 팜티람 씨가 가입하면서 3대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백 대표는 노모에게 답을 미룬다. 얼굴에 얇은 미소가 가득한 김복순 여사는 기분이 최고란다.

“돈이 아깝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일에 쓰는 거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요. 정


말 최고로 좋았어요. 내게도 그런 기회를 준 아들과 손자에게 고마울 뿐이지요.”

평생 과수원 농사를 하며 열심히 살아온 김복순 여사는 아들 백 대표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한다. 어려서부터 장남으로 힘든 과수원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왔던 더없이 착한 아들이라면서 말이다.

**주변의 도움에 보답하는 길**

백원기 대표는 젊은 시절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뒀다. 건축자재상을 시작으로 가스 충전소, 건설 회사 등등 손대는 일마다 그야말로 술술 잘 풀렸다. 그러다 우연히 문화재인 고택의 소유자들이 유지와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도움을 주다 이제는 문화유산 '한옥'의 대표로 고택 보존 사업과 문화 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백 대표는 큰 어려움 없던 사업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자가 있겠는가. 힘





“3대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하니 거창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의  
시작은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봉사였어요.  
8년 정도 하면서 나눔의  
즐거움을 알았고, 돈을  
값어치 있게 쓰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백원기 대표



“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사랑하는  
 할머니와 아내를 위해  
 두 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진행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간질간질하면서 큰 감동을  
 느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지  
 깨달았죠. - 아들 백규현 씨

”

들게 사업체를 일구었음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의 긴 여정이 궁금했다.

“부모님 인심이 참 넉넉하셨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성공을 두고 아버님 친구분들이 ‘너희 아버지가 잘 베풀어 잘된 거다’라고 하실 정도로요. 사업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늘 주변을 살피신 부모님부터 직원들, 그리고 고객까지 모두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백 대표에게 나눔은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의 마음이다.

### 사회적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

3대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백 대표의 나눔은 작은 봉사에서 시작했다.

“우연히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거예요.(웃음) 매주 수요일마다 8년간 했는데요, 돕는 기쁨을 맛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값어치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 대표는 그 후 매년 사랑의열매를 통해 형편이 닿는 대로 조금씩 기부하기 시작했다. 아너 소사이어티가 생기기도 전이다.

“아들이 맹학교를 다닐 정도로 선천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실명을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정말 성장할수록 기적처럼 시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너 소사이어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가족과 함께 아너 가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백 대표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들 규현 씨가 실명 위기가 지 겪은 청년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다고만 생각했을 뿐. 더욱이 아들 규현 씨는 이미 아버지의 사업체 일부를 물려받아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였다.

“시력이 좋지 않던 아들이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다문화가정까지 이루었잖아요. 우리 가족도 약자일 수 있다고 생각해

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요.” 설거지 봉사를 불사할 정도로 남편 못지않은 왕성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백 대표의 아내 박종미 씨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 나눔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가족

“아들이 혼자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수익을 제법 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죠. 돈을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백 대표는 자신의 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아들 규현 씨가 이끌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규현 씨는 자신의 가입을 통해 아버지 뜻을 알았고, 할머니와 아내의 가입을 도우면서 더욱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처음엔 가입식에 가서야 대단한 일이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기부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간질간질하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이런 기분 때문에 기부를 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웃음)”

아버지는 자신에게 늘 단단한 나무이며 큰 그늘이라고 규현 씨는 말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닮고 싶다면서 말이다. 매 순간 멋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박종미 씨도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남편이 정말 늘 멋있다”고 한마디 거들었다. 조용히 가족의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 팜티람 씨도 “착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고 했다.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있는 가족의 온기가 집 안을 가득 메웠다. 그래서 따뜻함은 느껴지는 거라고 하나 보다.

“거액을 기부하는 그런 거창한 것만이 나눔은 아니에요. 저의 시작은 도시락 배달 봉사였고, 아내는 설거지부터 도왔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해보면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백 대표는 자신이 느낀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마 그 마음은 아들 규현 씨가 느낀 그 감동이라. 더없이 환한 봄날이었지만, 백원기 대표 가족의 마음이 더 환한 듯했다. 눈부실 만큼 말이다. ❀





## 가수 이한철과 뮤지션 17명이 함께 부른 국민 응원송 코로나19라도 괜찮아 잘될 거야~

후렴구만 들어도 전 국민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슈퍼스타'가 코로나19 응원송으로 재탄생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음악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방-방 프로젝트' 기획자이자 원곡자인 가수 이한철에게 프로젝트 후일담을 들었다. 글 이선희 사진제공 튜브앰프

### 사회적 거리 두기 작업 방식으로 완성

가수 이한철 씨는 지난 2월 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다. 당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갈 정도로 코로나19 기세가 대단할 때였다. 이런



시점에 '음악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다.

"TV를 보는데 시사 프로그램에서 오프닝곡으로 '슈퍼스타'를 사용하면서 진행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노래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이 노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지요."

그는 동료 뮤지션들에게 '슈퍼스타'를 함께 부르자며 제안했고, 이를 만에 커피소년, 정혜선(제이레빗), 좋아서하는밴드, 박윤식(크라잉넛), MC메타, 토마스룩, 신현희, 헤이맨, 이상미, 서창석(불독맨션), 신동훈, 양영호, 박성룡, 이은상 등 개성 강한 17명의 지원군이 모였다. 특히 가수 이상미는 참여 당시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몸이었다. 혹여 태아와 산모에게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워하는 이한철 씨와 달리 그는 강한 참여 의지를 드러내며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만큼 각자의 공간에서 녹음을 했고,

뮤직비디오도 각자 따로 찍었어요.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만든 18개 음악 파일을 하나로 합쳤을 때 과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뮤지션 모두 걱정했죠. 일주일 만에 완성한 결과물을 공유했을 때 모두들 '만나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다니!'라며 놀라움과 만족감이 뒤섞여 단체 카톡방이 뜨거웠답니다.”

### 함께 부르는 '슈퍼스타'

각자 '방'에서 만든 만큼 이번 프로젝트명도 방과 방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방-방 프로젝트'라고 지었다. 참신한 기획만큼이나 18명이 함께 부른 '슈퍼스타'는 새로운 느낌이다. MC메타의 랩으로 시작해서 정혜선(제이레빗), 좋아서하는밴드 등 섬세한 여성 보컬이 도입부를 장식하고, 박윤식(크라잉넛) 특유의 시원하게 지르는 창법을 부드러운 커피소년의 목소리로 이어간다. 이한철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저것 다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재미가 있다.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하고 많은 분이 힘이 난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보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퍼스타'는 2005년에 발매한 곡이에요.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곡이 빛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이 부르고, 좋아한다는 건 뮤지션으로서 정말 엄청난 복이죠.”

'슈퍼스타'는 방-방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사람이 코로나19 응원송으로 불렀다. 무기한 개학이 미뤄진 학생들에게 보내는 초등학교 교사 버전, 지역 음악 예술인과 의료진,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부산시에서 제작한 응원송까지. 특히 이한철 씨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고 싶다”며 부산시에 음원 무상 사용을 기꺼이 허락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거야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슈퍼스타' 함께 부르기를 한 것이 엄청 힘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작은 씨앗이 되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요. 참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부른 버전도 봤어요. 도란도란 앉아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 노래로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방-방 프로젝트의 영상을 올리기 전 이한철 씨는 사랑의열매에 전화해 음원 수익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음원 수익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방-방 프로젝트는 '나를 잇게 하는 우리'라는 뜻의 나우사 회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했어요. 나우사무국에서 코로나19 나눔 단체를 면밀히 살펴본 후 사랑의열매를 기부처로 정했죠. 거액을 기부하는 연예인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저희는 아주 작은 나눔이죠.(웃음) 기부보다는 노래에,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으로 참여한 뮤지션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해요.”

현재 그는 나우의 총감독으로 암 경험자들과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들과도 직접 대면하는 대신, 화상 수업으로 한 소절 한 소절 함께 노래를 완성 진행 중이다.

“얼마 전에는 온라인으로 '방-방 콘서트'도 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온라인 관객들은 각자 자기가 먹을 군것질 거리를 갖고 와서 먹으면서 음악도 듣는 브런치 콘서트였죠.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음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앞으로 기존에 형성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필요한 음악을 만들고 소통하는 재미를 좀 더 느껴보려고 해요.”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슈퍼스타'처럼 이한철 씨의 말에는 경쾌하면서 따뜻한 힘이 있었다. 꼭 그의 노래처럼 말이다. ♣



나눔리더에 가입한 뷰티 크리에이터 새벽

“앞으로도 구독자들과  
가볍고 재밌는 기부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약 64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새벽이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어떤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겁게, 그리고 단단하게 꾸려나가는 새벽.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그를 만났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아이스크리에이티브

### 새벽과 셋별이 만나 좀 더

#### 착한 세상으로

지난 4월 3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새벽의 나눔리더 가입식이 열렸다. 새벽은 미혼 한부모 가정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 ‘셋별기부 릴레이’라는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이벤트를 하면서 제가 지닌 영향력을 뷰티나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뜻깊은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나눔리더 가입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제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항상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이예요.”

셋별기부릴레이란 코로나19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새벽이 자신의 구

독자들과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이다. 참고로 ‘셋별’은 구독자를 부르는 애칭이다. 새벽은 나눔리더 가입식에 앞서 사랑의열매에 코로나19 피해 성금을 전달하며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그의 구독자들도 사랑의열매를 비롯해 많은 나눔 단체에 기부를 이어나갔다.

“릴레이를 진행하면서 너무 뿌듯했고, 구독자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을 기부해 부끄러워 SNS에 올리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아서 의아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구독자들과 가볍고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 나누는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나

새벽의 유튜브 채널에서 561만 회나 조회된 영상이 있다. 바로 그가 항암 치료 중 삭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새벽은 지난해 2월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다. 뷰티 크리에이터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예쁜 모습만 보여주던 그였기에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와 삭발을 보여준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새벽은 영상을 공개했다. 자신처럼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고 싶어서였다. 영상 속에서 새벽은 긴장된 표정을 숨기며 애써 밝은 모습을 유지했지만, 머리가 짧아질수록 눈가가 축축이 젖었다. 하지만 이내 짧은 머리를 보고 키위 같이라며 웃거나, 자신의 두상이 예쁘지 않냐며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삭발 영상 이후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3일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답게 가발 고르는 재미에 푹 빠진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나눔리더 가입식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고 떨렸어요. 사랑의열매 회관에 들어가니 많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어리둥절하기도 했어요.(웃음) 가입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가입식 사진을 보고 구독자들이

나 지인들이 멋있다고 칭찬해주실 때마다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요. 나눔리더라는 이름에 담긴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열매를 방문한 새벽은 64만 구독자가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화려함보다는 함께 있는 사람과 그 공간을 기분 좋은 에너지로 바꿔주는 사람이었다.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투병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맞서는 에너지에 배울 점이 크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나눔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받는 즐거움 못지않게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나눔을 실천해보니 주는 즐거움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부도 그 행복과 즐거움의 일환이고요.”

새벽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은 같았다. 바로 자신의 행복이다. 게다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닌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는,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다. 새벽의 앞날에도,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나눔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함께한 뷰티 크리에이터 새벽



광주은행은 광주시청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한상원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사랑카드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이 2019년에 전달한 광주·전남사랑카드 기부금은 전남 약 1억 4,338만 원, 광주 약 1억 5,196만 원으로 총 2억 9,500여 만 원에 달했다.

브랜드 파워 3년 연속 1위에 빛나는 광주은행의 비결

# 광주은행과 사랑의열매가 써 내려간 '사랑+사랑=나눔' 공식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 자리에 빛난 광주은행.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익 이상의 가치를 믿어온 광주은행에 주어진 왕관이다. 광주은행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랑의열매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면서 나눔의 빛은 더욱 커졌다. 글 강보라 사진제공 광주은행



사랑에 사랑이 더해지면 나눔이 된다. 대한민국 사랑 실천의 대표 주자 사랑의열매와 광주·전남 대표 은행 광주은행이 각각의 사랑을 모아 뜨거운 나눔 정신을 발현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2018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이용 금액의 일부를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고객은 기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용객 대부분이 광주·전남을 선택함으로써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고향을 떠올리며 기부하는 사랑의 마음도 커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사회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다시 한번 조성한 것이다.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지난해 말까지 3만 4,000여 장을 발급하며 뜨거운 인기를 모았다. 전국 140여 개 지점을 보유한 광주은행이 광주·전남 사랑카드를 통해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기부금은 2018년 1억 2,000만 원, 2019년 2억 9,500여 만 원으로 2년간 기부액은 총 4억 1,500만 원이다. 1년 사이 2.5배 규모 가까이 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 임직원 50% 이상이 기부하는

#### ‘The Best 착한일터’

광주은행과 사랑의열매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랑의 불씨를 지펴왔다. 광주은행과 광주은행노동조합은 광주 사랑의열매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7,800만 원을 전달하며 사랑의온도담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광주은행의 노사가 함께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하기 좋은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 광주은행은 광주 사랑의열매가 ‘The Best 착한일터’로 선정했는데, The Best 착한일터는 임직원 50% 이상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매년

소외된 지역민을 위한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광주은행이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국경을 넘는 가족애를 지원하다

광주은행과 전남 사랑의열매가 다문화가정에 전한 사랑은 진한 가족 사랑을 맛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한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행사’를 통해서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로 지금까지 60가족, 총 200여 명이 모국의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나눴다.



- 1 광주은행이 마련한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행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총 60가족이 모국의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맛봤다.

### 나눔 실천에 세심함이 똑똑!

광주은행의 나눔에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2012년부터 총 2억 원의 성금을 광주전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전달해온 것이 대표적.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모은 성금은 생계비와 의료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피해자 보호 등에 사용했다. 지난여름에는 ‘여름나기 쿨 박스’ 100박스를 폭염 취약 계층에 전달하기도 했다. 여름 이불, 양말, 모기 퇴치약, 부채, 라면, 차약, 비누 등 11종류의 생필품을 담은 박스에는 세심



한 배려가 더해져 있었다. 쿨 스카프 2,000장 역시 광주의 폭염 취약 계층에 전해졌다.

전남 일대 지역민을 위한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양파 가격 폭락으로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광주은행은 무안군 양파 사주기 운동에 동참해 1,0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구매했다. 구매한 양파는 무안 관내 어려운 계층에 전달해 지역 농가도 살리고 어려운 계층도 질 좋은 식재료를 섭취할 수 있었다. 또 해남사랑상품권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줬다.

한편 광주FC 입장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을 구매해 저소득층에 전달한 일은 광주은행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선 대표 사례다. 광주은행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후원 은행으로서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며 대내·외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 '달빛동맹' 등 코로나19 고등 분담에 앞장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광주은행의 나눔 정



2



- 1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사랑이 담긴 각종 물품을 전달하는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 관계자들
- 2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광주은행.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고객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 우뚝 섰다.

신은 더욱 빛을 발했다. 우선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2월 말경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 각각 마스크 3만 장을 전달해 광주 시민의 불편함을 더는 데 일조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하던 대구에도 마스크 1만 장을 전달해 달빛동맹을 실천했다. 더불어 지역 긴급 구호 성금으로 광주시청 1억 원, 전남도청 1억 원, 목포·순천·여수·나주시에 후원금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코로나19에 따라 마스크 5부제, 금융 지원 등 여러 유형의 지원 방안을 시행했지만 위기는 어려운 계층에 더 잔혹하게 다가왔다. 무료 급식이 중단되고 자원봉사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한층 커진 것이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성이 듬뿍 담긴 사랑 꾸러미'를 마련했다. 마스크, 핸드워시, 식료품 등 19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박스 700박스를 광주은행 임직원이 직접 제작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진료소의 의료진과 어려운 계층에 전달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경

영 실천도 빠뜨리지 않았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5억 원을 출연했으며,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숙박업·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시행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1,000억 원 투입과 최대 1.3%의 특별금리우대 적용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영인에게 손길을 내밀었다. 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은행 입점 업체에 6개월간 임대료 30%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했다.

### 지역사회에서 빛을 발한 팀플레이!

광주은행의 지역사회를 향한 선행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평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도시락 후원,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선정,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지원, 멘토링 봉사 활동, 장학금 지급, 교복 나눔 행사 지원, 진로 체험 진행 등을 지원해왔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무료 배식 후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금융박물관 금융 교육, 어린이 금융 교육 등도 실시한다.

임직원도 김장 나눔, 연탄 배달, 농촌 봉사 활동,



- 3 태풍 피해 농가 지원 봉사 활동에 발 벗고 나선 광주은행 임직원들
- 4 5 코로나19 피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광주은행이 긴급 구조박스 700개를 어려운 계층과 의료진에게 전했다. 또 마스크 3만 장을 전달함으로써 마스크 대란을 겪는 광주 시민의 불편을 더는 데 일조했다.



태풍 피해 농가 돕기, 사랑의 헌혈 등에 발 벗고 나서 지역 사랑 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 '광은리더스클럽'을 중심으로 명절마다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광주은행이 펼친 은행장배 '2019 광은리더스클럽 골프대회'의 성금 2,000만 원을 광주·전남 지역사회를 위해 기탁하기도 했다.

브랜드 파워 3년 연속 1위라는 광주은행의 명성은 거저 얻은 게 아니었다. 평소 광주은행과 사랑의열매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만든 '사랑+사랑=나눔'이란 공식이 빛을 발한 결과였다. 곁에서 응원하는 든든한 팀플레이가 있다는 사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난다. 🍀



4



5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함께 어울리며 단단해지는 난민 공동체, 세상의 방파제 될 것”

난민이나 분쟁, 테러, 강제 이주 같은 단어는 얼핏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1994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난민은 우리의 이웃이며, 이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새 시대의 과업으로 떠올랐다. 글강보라 사진제공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이지만, 국가나 공공 차원의 난민 지원이 거의 없어 난민의 기본 생존권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관이 바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다. 이곳은 난민의 기본권 보장 외에도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Spirit of Togetherness' 사업을 벌여 눈길을 끈다. Spirit of Togetherness는 난민 가정의 공동체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예컨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립이지만, 공동체가 없는 난민에게는 '낚시 동호회'를 만들어줘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가한 난민들. 재능 기부로 머리 탈기와 헤어 그려주기 활동에 참여해 행사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2 노인복지관에서 네일 아트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 난민이라는 말에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며 좋은 일 한다"는 칭찬도 들었다.



며 1순위로 만든 것도 한국어 교실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가나다’ 못 배워요. 거기서는 ‘빨리빨리’, ‘안 돼’, ‘하지 마’, ‘이리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줘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좋은 말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어 교실 수강생)

기본 한글 읽기부터 실용 한국어 교육과 함께 난민으로서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은행 일 보기, 공공급영수증 읽기, 출입국센터 서류 작성하기 같은 난민 필수 업무 말이다. 한국어 교육은 난민 가정의 엄마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부모와 함께 탈출한 자녀들부터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가 달라 학교에서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과 선생님 문자가 계속 와요. 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어도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어 교실에서 배우니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직 더 배워야 하지만 할 수 있는 한국말이 늘어나서 너무 좋아요.”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네일 아트도 인기다. 현업에서 활동하는 네일 아티스트가 강사로 나서 기본 케어부터 실전 네일 스타일의 기술까지 제대로 습득하고 있다. 초반에는 쉽지 않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여기에 아프리카, 아랍 등 다양한 문화의 특징이 발현되며 독창적인 네일 아트를 완성 중이다.

“네일 아트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면 좋겠지만, 우리의 비자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네일 아트 교실 수강생)

수강생들은 연습할 때도 마네킹 대신 서로의 손을 빌려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 덕에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던 아프리카 문화권과 아랍 문화권이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었다. 자신감이 붙은 수강생들은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일 아트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성장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소득이다.

###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해요.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 돈이에요.



돈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오랜 경험 끝에 난민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 공동체가 답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공동체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면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난민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 자립을 위한 장기적 대응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진행하는 여러 소규모 모임은 난민들의 능력 개발과 함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발점인 셈이다.



- 1 영어로 진행하는 아동 뮤지컬 소모임. 영어를 놀이 삼아 어울려 교육과 친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 2 시화전을 열어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 3 전자식 재봉틀의 조작법을 익힌 뒤 담요, 냄비 집게, 에코백 등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 4 전혀 다른 국가와 인종의 사람들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합창은 그 자체로 몽글한 감동을 안겨준다.

합창단과 재봉 소모임이 이런 사업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합창단은 난민들 스스로 프랑스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난민 당사자를 리더로 선출해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했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일정을 공유하며, 연습과 발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문화와 언어권이 다른 당사자들이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며 조율해가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수많은 연습 끝에 제5회 난민 영화제 난민 문화 행사에 초청받아 데뷔하는 성과도 올렸다. 재봉 교실은 수업에서 배운 기술로 담요, 냄비 집게, 에코백 등을 판매하며 경제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처럼 난민 스스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갈 수 있다. 네일 아트와 합창단 등 다양한 활동이 지속되면 지역사회는 난민을 위협한 외국인이 아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이웃 주민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렇듯 작은 공동체의 형성부터 시작해 난민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이는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가 난민들의 소규모 모임을 시작한 계기이며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 모임들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박정완 사회복지사

## “난민들의 인생에도 밥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난민들을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정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물론 ‘밥’이 가장 중요하죠. 우선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고도 하잖아요. 저는 난민들의 인생에도 밥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열매에서 후원해준 덕에 난민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호응이 좋았던 것이 ‘네일 아트’입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우연히 연이 닿은 노인복지관에 네일 아트 봉사를 했는데,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르신들이 난민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난민들은 그 순간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움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뀐 시점이기니까요. 네일 아트가 끝난 뒤 기뻐하는 어르신들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 것은 물론이고요. 발음도 잘 안 되는 난민들이 “할아머니, 할모니(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또 가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보면 나눔은 사람의 본능인가 봅니다. 어렵더라도 재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쁘니 말입니다. 사랑의열매의 후원이 난민들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정과 열시로 자존감이 낮아지던 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음을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이처럼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온 용돈 전액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한 여덟 살 김인우 군

## “어려운 사람에게 제 돈으로 마스크랑 손 소독제를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작고 귀여운 꼬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어른보다 크고 넓다. 평생(?) 모아온 용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는 것만 봐도 그렇다. 더욱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작은 마음이 스스로 결정했다.

기특하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다. 글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 기부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올해 초등학교생이 된 인우는 뽀얀 볼이 귀여운 여덟 살 어린이이다. 앞니가 하나 빠진 모습이 영락없이 어린아이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안다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다. 명절이며 생일,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받아 모아온 용돈 전

액 130여만 원을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일,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본부에서는 김인우 군의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인우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늠름했다. 그리고 기부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기부는 돈이랑 그런 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기부를 진짜로 하려니까 조금 걱정이긴 했지만... 전달식에 참석하니 기분도 아주 좋고, 기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해요!”

### 뉴스보다 기부 결정해

어린이가 기부를 했다고 하면 대개 부모님이 주도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인우의 기부는 달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우 스스로가 한 결정이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뉴스에서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이나 그들을 돕는 기부 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저희도 공적 마스크 판매 전까지 구입을 못 했어요. 거기에 아이들도 저금통을 기부한다는 뉴스를 몇 번 보니까... 본인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뉴스를 보다가 기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인우의 어머니 정명선 씨는 어린 아들의 결정을 허투루 흘려들지 않았다. 인우 또한 자신이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네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부모님의 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인우의 부모님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면 부담 갖지 않도록 조언했다. 인우는 조금 고민한 후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념으로 용돈에서 1,000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하나씩 6만 1,000원 남기고 전부 기부하기로 했어요. 용돈에 5,000원짜리는 없었어요.(웃음)”

### 더 큰 꿈을 꾸어요

인우는 아주 밝은 성격의 소유자다. 어려운 친구를 가르치는 편견도 없다. 그저 같이 재미있게 놀면 되는 거다. 기부한 후에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으쓱대는 법이 없다.

“인우가 사랑의열매 전달식에서 기부를 하고 온 날, 이번엔 이만큼 했으니 다음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는 1억을 모아서 기부하겠다고 일기에 썼더라고요. 인우의 큰 마음에 부모인 저희도 놀랐어요.”

정명선 씨는 인우가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부모이자 어른인 자신도 새삼 인우 덕에 나눔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다. 인우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다음에는 더 큰 기부를 하고 싶다는 목표는 생겼지만, 아직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인우는 마지막까지 돈이 없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반짝이는 마음을 지닌 아이가 또 있을까. 얼마나 더 반짝이는 일을 할지, 또 그런 어른이 될지 기대되고 기대된다. ❀





20년 동안 기적과 희망을 선물한

## 희귀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

학창 시절에는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도 많다. 이런 꽃 같은 시절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홀로 고통을 이겨내는 학생들이 있다. 봄이 되면 경북에서는 그들을 위해 사랑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모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다. 글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희귀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은 전국 최초 난치병 학생을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2001년에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경북 사랑의열매와 경북교육청이 함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2006년에는 학생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또 2004년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되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 매년 5월이면 경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돕기 희망음악회, 난치병 학생 돕기의 날 행사 등 자체 모금 행사가 열린다. 그리고 경북교육지원청 및 해당 직속 기관, 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 학교 유관 기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이 사랑의온도탑 모형 종이 모금함에 성금을 담아 기탁한다. 이렇게 모은 성금은 경

북 지역의 만 18세 이하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희귀난치병 학생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희귀병난치 학생 돕기 캠페인은 지난 20년 동안 모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총 187억 3,60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덕분에 지원 학생 수와 지원액도 꾸준히 증가해 1,286명에게 총 104억 3,600만 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2001년~2019년 12월 9일 기준). 치료 병원은 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전국 64개 병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의료비 한도 없이 완치될 때까지 지원한다. 또 결과와 관계 없이 완치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에게는 끝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세상에 희망의 시를 남긴 열일곱살아너 회원

지난 2017년 경북 칠곡에서 50대 아버지가 하늘의 별이 된 딸 故 방다희 양의 이름으로 경북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아버지는 딸처럼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며 희귀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에 뜻을 함께했다. 다희 양은 10년간 이어진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도 틈틈이 동시 수백 편을 쓰며 시인의 꿈을 키워왔다. 그리고 2011년 6월 첫 시집 <희망의 온도계>를 세상에 내놓으며 자신의 꿈을 이뤘다. 생전 '희망'이란 말을 좋아했던 시인 故 방다희 양, '마음속 깊은 곳에 자그마한 예쁜 꽃'을 남기고 간 그의 시를 소개한다.

## 희망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자그마한  
한 송이의 예쁜 꽃

어느 누구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자신의  
꽃 같은 마음

그 누구도 아직까지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  
꽃 한 송이의 이름

하지만 나는 보았다네.  
그 마음속 꽃의 이름은  
'희망'이라는 꽃이라네



1 매년 캠페인 모금을 위해 열리는 경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돕기 희망음악회에 참여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2 올해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희망 스토리를 담아 발간한 <기적이 당신에게>

“이제 아프지 않아서 참 좋아요”

### 김천초등학교 5학년 한○○군

제가 3학년 때 난치병 어린이 돕기 운동에 학용품 사고 남은 돈 2,500원을 냈습니다. 이 돈을 낼 때 제가 도움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 밑에 작은 혹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많이 아프면 소독약으로 소독하곤 했습니다. 3학년 때 담임선생님, 보건 선생님과 함께 큰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개전부누공'이라고 진단하셨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지만, 수술비가 300만 원이 넘어 결국 예전처럼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모금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늘을 날 듯 기뻐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교육감님과 선생님, 여러 어른들의 모금으로 마련한 난치병 제자 돕기 성금이 더해져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이제는 귀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소리도 잘 들리고 참 좋습니다. 저의 귀를 고쳐준 선생님과 친구들의 고마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시민이 발견한 일상속 성차별 단어

# 시민과 함께 성평등 언어로 바꿔요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 알고 보면 성차별적 언어가 꽤 있다.

습관적으로, 혹은 성차별 요소를 알고 있지만 딱히 대체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현재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글 이선희 참고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성차별 언어

지난 2018년과 2019년 7월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성평등 주간을 맞아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성차별 단어를 시민과 함께 개선하는 캠페인이다. 이에 앞서 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차별 단어를 바꿀 성평등 단어에 대한 시민의 제안을 받았다. 2018년 총 608건, 2019년 총 1,825건의 개선안이 접수되었다.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시민이 제안한 성차별 단어 중 대안 제시가 가능한 것을 선정했다. 단, 비속어, 비표준어, 어법에 맞지 않는 언어, 대안 제시(성평등 언어)가 불명확한 것 등은 제외됐다. 자문회의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성평등 언어 중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단어를 2018년 10개, 2019년 10개씩 선정해 발표했다.



여직원, 여의사, 여교수 등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

여의사 → 의사 | 여교수 → 교수

2018년에 가장 많이 교체 시민 제안을 받은 성차별 언어는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 자를 빼자는 것이었다. 남성의 경우 남교수, 남의사 등 ‘남’ 자를 붙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 데 반해 여성은 거의 모든 직업 앞에 ‘여’ 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여교수, 여군, 여경, 여의사가 아닌 교수, 군인, 경찰, 의사로 부르자는 의견이다.

## 엄마도 아빠도 불편한 '맘' 시리즈

맘스스테이션 → 어린이 승하차장 | 맘카페 → 지역의 육아 카페  
마미캡 → 아이안전지킴이

육아 관련 신조어에는 엄마를 지칭하는 '맘(mom)'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아이들 등·하원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는 '맘스스테이션',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카페 '맘카페',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마미캡' 등이 있다. 하지만 단어만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육아는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만의 역할로 한정 짓는다. 대신 어린이 승하차장, 지역의 육아 카페, 아이안전지킴이 등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를 주체로 하는 단어로 순화하자는 의견이다.

## 총각은 처녀작을 못 만드나요?

처녀작 → 첫 작품

언론에서 소설가의 '처녀작'이란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처녀를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처녀작의 처녀는 일이나 행동을 처음으로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 처녀 대신 '첫'으로 바꾸면 원래 의미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처녀작은 첫 작품, 처녀출전은 첫 출전, 처녀비행은 첫 비행 등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시민들은 의견을 제시했다.

효녀는 없고,  
효자만 있는 효자 상품

효자 상품 → 인기 상품 | 효자 종목 → 인기 종목 | 효자 매물 → 인기 매물  
스포츠맨십 → 스포츠 정신 | 비즈니스맨 → 직장인 | 개그맨 → 코미디언

앞서 언급한 사례와 반대로 남성을 차별하는 단어도 있다. 효자 상품, 효자 종목, 효자 매물 등 수익을 내는 특정 상품을 일컬을 때 '효자'라는 단어를 붙인다.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효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기가 많은 현상 그대로 표현해 인기 상품, 인기 종목, 인기 매물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여성의 경우 직업 앞에 '여'자를 붙여 말한다면, 남성은 뒤에 '맨(Man)'이 붙는다. 스포츠맨십, 비즈니스맨, 개그맨은 성별 구분 없는 말로 순화해 각각 스포츠 정신, 직장인, 코미디언으로 표현할 것을 시민과 전문가들은 권장했다. ❀



방콕 일상 속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은 열매 문화 리스트

## 예술로 만나는 따뜻한 이야기

책과 영화, 그림과 음악, 노래와 춤이 있는 공연까지 모든 예술은 '사람'을 말한다. 그 속에는 차마 내뱉지 못한 진실까지 옷투이 담겨 있다. 방콕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은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각 영화사·출판사



### 가족이라는 최고의 감동을 노래한 <코코>

감독 리 언크리치

<코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멕시코 전통 명절 '죽은 자의 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우연히 죽은 자의 세상으로 들어가 해가 뜨기 전에 원래 세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소년 미구엘과 그를 돕는 대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기꾼 헥터의 세대와 세계 차이를 극복한 우정을 그린다. 죽은 가족과 친구들은 이승에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죽은 자의 날에 마리골드 꽃길을 건널 수 있다. 떠나야만 했고, 잊혀가는 이들의 간절함과 사랑, 소망을 담은 영화는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코코>의 배경인 멕시코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제작진은 3년간 멕시코 전역의 박물관·시장·광장·교회·묘지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즐겨 듣는 음악, 일상생활과 전통에 대해 인터뷰했다. 그 과정에서 제작진은 멕시코 주민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

### 가족을 지키고 싶은 세 소녀의 모험 <우리집>

감독 윤가은

<우리집>의 주인공 하나는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무너져가는 가족을 보면서 직접 요리하고 밥을 차리며 가족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애쓴다. 그러다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동네 친구 유미·유진 자매를 만나고, 함께 힘을 합쳐 집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가족에 대한 고민은 좀처럼 완벽하게 해결되는 법이 없고, 영원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점을 아이들 시선으로 섬세하게 포착해낸 <우리집>은 그래서 어른들 또한 더욱 공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다. 어린 시절 가족 문제로 아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이라면, 혹은 지금까지도 가족을 너무 미워하거나, 또 사랑하는 어른이라면 말이다.





### 〈빨간 모자가 앞을 볼 수 없대〉

한쉬글·그림, 조윤진 옮김 | 한울림스페셜

〈빨간 모자가 앞을 볼 수 없대〉는 옛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한 그림책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빨간 모자와 새로운 동물 친구들을 등장시켜 서로 돕는 따뜻한 마음들이 바뀌어가는 세상, 함께하는 가치를 보여준다. 낮 설고 두렵다고 마음의 담장을 쌓고 경계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생각해볼 시간을 제공하는 따뜻한 그림책이다.

### 〈알사탕〉 백희나 지음 | 책읽는곰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마법 알사탕이 여기에 있다. 〈알사탕〉은 2020년 한국인 최초로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표 그림책이다. 알사탕을 먹으면 다른 존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불편한 소파, 고단한 구슬, 아빠와 할머니의 진심 등 각양각색의 마음을 듣게 된 주인공 동동이는 비로소 타인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된다.



### 〈송아지똥〉 유은실 지음, 박세영 그림 | 창비

〈송아지똥〉은 권정생문학상, 한국어린이도서상 등을 수상한 작가 유은실이 글을 쓰고,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화가 박세영이 그림을 그렸다. 어느 봄날, 세상에 태어난 송아지똥의 짧은 생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말한다. 권정생의 〈강아지똥〉을 오마주해 만든 이 이야기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요즘 어린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가도록 따뜻한 시선과 에피소드를 토대로 새롭게 썼다. 🍓

심재선 인천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인천 사랑의열매 심재선 제10대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취임식 후 바로 신임 회장으로서 첫 업무에 돌입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지난 3월에 취임한 심재선 인천 사랑의열매 제10대 신임 회장

심재선 회장이 대표로 있는 복합 물류 기업 공성운수(주)는 지난 1월, 인천 5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했다. 당시 그는 “나눔을 통해 인천이 조금 더 따뜻한 도시가 되길 바라며, 나눔명문기업처럼 인천이 나눔명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인천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직을 맡아 ‘나눔명문도시’를 만들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지난 3월 30일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사랑의열매에서 제 9·10대 회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취임식에서 심재선 회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인천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따뜻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따스한 마음과 정성

을 가슴에 새겨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2011년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5호로 가입했으며, 인천 사랑의열매 운영위원,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6년에는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2006년부터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협의회 부회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회장, 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으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심재선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인천 사랑의열매를 맡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지나온 나눔 행보를 보면 이 위기를 거뜰히 돌파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



## SK(주) C&amp;C와 블록체인 기반 공동 사업 협약 체결

생활 속 기부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기부 플랫폼

시대 변화에 따라 기부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사랑의열매는 SK(주) C&C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부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와 SK(주) C&C(대표이사 박성하)가 체결한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공동 협력 사업 협약’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생활 속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SK(주) C&C가 블록체인 플랫폼 ‘체인제트(ChainZ)’ 기반의 기부 플랫폼 ‘따뜻하게 체인지’(이하 체인지)를 제공하고, 사랑의열매가 이를 통해 기부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부 플랫폼 체인지의 가장 큰 장점은 1원 단위의 소액 기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기부자의 사에 따라 기부금 사용처가 결정된다는 것도 강점이다. 사랑의열매가 시행하는 여러 공익사업이나 기부 캠페인 중 본인이 원하는 기부처를 골라 기부하면 된다. 본인의 상세 후원 내역을 클릭하면

기부금을 전달한 사업이나 캠페인의 진행 경과와 지원 대상에 대한 배분 결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협약식에서 SK(주) C&C 김영대 Digital Tech.센터장은 “체인지는 기부·배분·집행 등 단계별로 기부 과정이 모두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며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자신했다.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체인지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작은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부자와 나눔이 필요한 이웃 모두의 행복을 키우는 투명한 기부 문화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부 플랫폼이 현재 모금 환경의 한계를 넘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



업무 협약을 체결한 SK(주) C&C 김영대 Digital Tech.센터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왼쪽에서 세 번째)

중앙회



**MBN과 기부 캠페인 진행,  
'일어나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지역 경제'**

지난 4월 9일 사랑의열매는 MBN 매일방송(사장 장승준)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기부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어나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지역 경제'라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종사자와 재난 취약 계층을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한 협약식에서 장승준 MBN 매일방송 사장은 "MBN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함께해 뜻깊다"며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캠페인은 협약을 체결한 4월 9일부터 5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MBN 방송에 노출된 ARS 전화(060-700-1122)와 기부 계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셀럽과 팬이 주고받는 영상 메시지가 기부로 이어지는  
'셀레터' 나눔 협약체결**

국내 최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애드테크 플랫폼인 유커넥이 사랑의열매와 셀럽 영상 앱 '셀레터'에 관한 나눔 협약을 맺었다. 셀레터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플루언서인 셀럽에게 팬이 영상 메시지를 요청하면 셀럽이 직접 출연해 맞춤형 영상을 제공하는 앱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셀럽이 영상을 제작해 받는 수익의 일부는 사랑의열매에 기부된다.

유커넥을 운영하는 (주)그림에도의 김대익 대표는 "셀레터는 이번 협약으로 진행될 기부 시스템을 통해 셀럽과 팬 사이에서 발생하는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수수료 0%를 진행할 예정이다. 셀럽, 팬들과만 들어가는 소액 다수 기부 문화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랑의열매는 셀레터 공동 기획을 통해 소액 다수 기부 문화가 전 세대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회



SK네트웍스, 재난 취약 계층 등에 3억 원 상당의 식료품 지원

SK네트웍스(주)(대표이사 최신원, 박상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3억 원 상당의 가정용 간편식과 라면 세트를 기부했다. SK네트웍스는 매년 4월 8일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사회 공헌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국가 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봉사 활동 대신 다양한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식료품을 마련해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것이다. SK네트웍스에서 기부한 육개장과 갈비탕, 김치 등으로 구성한 간편식 6,000세트와 컵라면 3,000박스는 대구·경북 지역의 재난 취약 계층과 코로나19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원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주민들이 용기와 힘을 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SK네트웍스의 기부 물품을 신속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달력 판매 수익금 1,500만 원 기탁한 몽짱 경찰관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박성용 경사가 서울 사랑의열매에 1,500만 원의 달력 판매 수익금을 기부했다. 일명 ‘몽짱 경찰관 달력’을 제작·판매해 학대 피해 아동을 도운 경찰관들이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달력 판매 수익금은 경찰관들의 뜻에 따라 코로나19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 지역 소외 계층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미니스톱, 소프트크림 판매 수익 기부 협약

한국미니스톱(주)이 서울 사랑의열매와 소프트크림 판매 수익 1%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니스톱은 대표 상품인 소프트크림 전 상품의 본부 판매 수익 1%를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한다. 2013년부터 소프트크림 일부 상품의 본부 판매 수익 1%를 기부해온 미니스톱은 사회 공헌 활동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 기부를 소프트크림 전 상품으로 확대했다.

## 경기



### 용인시에 코로나19 피해 가구 지원금 전달

경기 사랑의열매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 가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사랑의열매 #함께극복\_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지역에 1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용인 지역에 코로나19 피해 극복 성금 9,620만 원을 전달했으며,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용인시가 추천한 962가구에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마스크 22만 장 기탁

지난 4월 16일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 전경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덴탈 마스크 22만 장(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마스크는 사회적 기업과 노숙인 쉼터, 외국인 노동자 등 경기 도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기관에 전달했다.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지난해 5월 '희망날개클럽' 모금 캠페인을 통해 연합회 소속 기업 CEO 500여 명이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경기북부



### 이태원 아너, 5,200만 원 상당 노트북 80개 기탁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이태원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지난 4월 8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5,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80대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위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학습 지도를 돕기 위해서다. 이태원 박사는 "필요한 수량을 전부 지원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스타필드 고양, 온누리상품권 1,000만 원 전달

지난 4월 16일 스타필드 고양(지점장 박세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1,000만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상품권은 고양시 관내 소외 계층의 식사 및 반찬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져 의미가 더 크다. 스타필드 고양은 해마다 성금을 늘려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는 등 소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



**강원FC,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1,010만 원 전달**

지난 3월 31일 강원FC 선수단 및 임직원 일동이 강원 사랑의열매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1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사무국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했다. 강원 FC 박종완 대표이사는 “지난해 도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리그를 시작하면 도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요진건설산업,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지난 4월 7일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요진건설산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최은상 대표이사는 “강원 도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로하고자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



**한국지엠, 장애인 시설 환경 개선 사업 6년 연속 지원**

사회복지법인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가 지난 4월 16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마산장애인복지관 부설 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에 장애인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의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는 2015년부터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0년 기획사업 시행 7개소에 지원금 전달**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4월 8일 2020년 신규 기획 사업에 선정된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7개소에 7,342만 2,000원을 전달하고 사업 수행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선정된 기관은 디지털 문화에 취약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과 사회 관계망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4개소, 장애인의 문화 정보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문화 여가 접근권 향상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3개소다.

## 경북



### 경상북도체육회, 희망릴레이 성금 기탁

경상북도체육회(회장 김하영)에서 지난 4월 1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체육인들의 성금 1억 2,900여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간 모금한 것으로, 도내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과 의료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처음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목하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 모금에는 도회원종목단체와 시군 체육회, 실업팀 선수 등 모두 1,111명이 참여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주시 취약계층 지원금 기탁

지난 4월 13일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반납한 임금 1억 4,700여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부장급 이상의 간부가 4개월간 반납하기로 한 임금의 일부로, 경주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위기 가구, 생활 거주 복지시설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의료 사각지대와 생계 곤란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다.

## 광주



### (주)대광건설,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전달

지난 4월 7일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주)대광건설(부회장 조영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8,82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임직원 282명이 10만 원씩 기부해 모은 2,820만 원과 회사 기부금 6,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조영훈 부회장은 “모금에 동참한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 광주 초등·중등교장단협의회, 성금 1,804만 원 기부

지난 4월 14일 광주 초등·중등교장단협의회(초등 회장 선정선, 중등 회장 김홍식)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804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급식 지원과 돌봄을 받아야 할 이웃 및 수용시설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초등 교장 95명, 중등 교장 68명 총 163명이 모금에 참여했다. 김홍식 중등교장단협의회장은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직원들 뜻 모은 성금 3,906만 원 전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지난 4월 9일 직원들의 정성 어린 성금 3,906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반납'(3월 급여의 50%)에 동참한 이태훈 구청장 이하 직원들과 공무원, 청원경찰까지 참여한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관내 저소득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수 김호중 팬클럽, 성금 1억 449만 원 기탁**

가수 김호중의 공식 팬 카페 '트바로티'가 지난 4월 7일 성금 1억 449만 140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트바로티 회원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대구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기부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를 만에 1억이 넘는 성금을 모금했다. 트바로티 관계자는 "김호중 가수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기 위해 2만 4,000여 명의 회원이 기쁜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며 "대구 시민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 키트 지원**

지난 4월 8일 대전 사랑의열매가 대전사회복지관협회와 대전장애인복지관협회, 대전노인복지관협회 소속 34개소 복지관에 2억 2,800여만 원 상당의 저소득 가정 생필품 키트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특별 성금으로 마련한 키트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복지관의 무료 급식 등 프로그램이 중단돼 도움이 시급한 이웃에게 제공했다. 대전 사랑의열매 정태희 회장은 "코로나19 특별 성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하겠다"고 전했다.



**솔젠트(주), 코로나19 성금 1억 원 기탁**

지난 4월 14일 코로나19 진단 키트 전문 기업 솔젠트(주)(공동대표 석도수·유재형)가 코로나19 극복 성금 1억 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솔젠트(주)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해 국내와 유럽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EUA)과 영구 사용을 위한 정식 승인 신청을 한 대전의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이다. 석도수 대표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 인천



### 인천농협, 코로나19 특별 성금과 식료품 세트 전달

지난 3월 31일 인천농협지역본부(본부장 임동순, 이하 인천농협)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성금 2,000만 원은 인천농협 조합장 일동이, 3,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는 남인천농협, 인천농협, 농협은행인천영업본부, 농협생명인천총국, 농협손해인천총국에서 준비했다. 즉석 밥, 삼계탕,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세트는 급식이 중단되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에 긴급 지원했다.



### 셀트리온, 마스크 30만 장 지원

지난 4월 9일 셀트리온(대표이사 부회장 기우성)이 마스크 30만 장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 안전망 구축에 일조하기 위해 그룹의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의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에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 것이다. 지원 물품은 제약 회사의 무균 공정에서 작업자가 착용하는 무균복 소재로 제작한 필터 삽입형 마스크 1개와 필터 10개 세트로 구성했으며, 1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 제주



### (사)재제주전라북도민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지난 3월 19일 제주도청에서 (사)재제주전라북도민회(회장 김대식)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기원하며 성금 1,0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사)재제주전라북도민회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전북 도민들이 설립한 민간단체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대식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긴급 구호 생필품 키트' 후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문윤영)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 급식이 중단된 독거노인의 결식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1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 생필품' 키트를 기부했다. 독거 어르신 생필품 선호조사를 통해 선정한 김, 죽, 국, 참치 통조림, 김치 등 식료품과 휴대용 손 세정제 등으로 구성된 키트는 제주시콜로서는노인지원센터를 통해 보내 취약 계층 독거노인 3,000가구에 전달됐다.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드림카' 차량 기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부산 지역 장애인복지관 세곳에 경차 3대(약 4,1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지난 4월 9일 부산의 사회복지기관 17개소에 전기차를 기부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지역 사회를 위한 차량 지원 사업을 펼쳤다. 좁은 도로와 골목길에서 활용도가 높은 경차는 복지 기관이 도시락 배달이나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 기관 344개소에 방역·소독 물품 전달**

지난 4월 2일 부산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배분 사업 전달식'을 개최하고, 부산 지역 사회복지 기관에 방역·소독 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특별 성금으로 방역 소독기 및 소독제를 구입해 지원했으며, 사회복지시설 344개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산 사랑의열매는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방역 물품 지원, 고령층 및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보건용 마스크 지원 등 추가 배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계룡건설산업(주), 세종시에 3,000만 원 기탁**

지난 4월 17일 계룡건설산업(주)(부사장 윤길호)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코로나19 극복 특별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세종 사랑의열매는 기탁받은 성금을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시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부금과 함께 윤길호 부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과 용기를 보태고 싶다”며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바람을 전했다.



**행복드림영농조합법인, 지역아동센터에 우유 후원**

지난 4월 9일 행복드림영농조합법인(대표 이국하)이 세종 지역 아동들을 위해 660만 원 상당의 우유 3,000팩을 기부했다. 기부받은 우유는 세종시의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전달했다. 이국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의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 충북



### 코로나19 특별 성금 10억 원 전달

충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4월 9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코로나19 특별 모금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충북 도민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모금한 것으로, 총 10억 144만 2,167원이 접수되었다. 성금은 방역 및 위생 관리, 취약계층 생계 지원, 복지 서비스 공백 지원,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 충북 도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배분할 예정이다.



### 도내 취약계층 및 노인 생활 시설에 방역·생필품 지원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도내 어려운 계층과 노인 생활 시설에 충북 사랑의열매가 1억 9,341만 3,000원을 전달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열악한 환경 탓에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도민을 지원한다. 이 중 7,941만 3,000원은 도내 어려운 계층의 생필품 및 위생용품 지원에, 1억 1,400만 원은 장기 요양 기관을 비롯한 노인복지 시설의 방역·소독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 울산



### 한국석유공사, 성금 2억 원 쾌척

지난 3월 5일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의 전 임직원이 동참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이 회사의 기부금을 더한 것으로, 울산시와 대구시에 각각 1억 원씩 지정 기탁했다. 양수영 사장은 "지역 주민과 방역 관계자 등을 위해 마스크와 방호복 등 의료 물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 동강도우리회, '착한일터 캠페인 협약' 체결

지난 4월 2일 동강도우리회가 울산 사랑의열매와 '착한일터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동강도우리회는 동강의료재단(이사장 박원희)의 동강병원(병원장 권혁포)과 동천동강병원(병원장 박경현) 임직원이 가입한 직원 후원회로, '착한일터 캠페인'을 통해 급여에서 약정한 금액만큼 자선 기금으로 적립해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부받은 성금은 병원 내 입원 환자 중 저소득층 및 위기 가정의 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군 공직자일동, 코로나19 성금 전달

지난 4월 3일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코로나19 극복 고통 분담을 위한 성금 1억 278만 1,690원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태안군청 전체 공직자 900여 명이 동참한 이번 모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 오염 사고 시 받은 전 국민적 봉사에 보답하기 위해 진행했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이다 소나마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희망과 응원을 담은 '안녕키트' 전달

충남 사랑의열매가 코로나로 위축되거나 고립된 이들과 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진 등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자 1억 원 상당의 안녕키트를 제작했다. 안녕키트는 대상에 따라 전달 품목이 다르다. 의료진에게는 홍삼액 비타민 등이 포함된 응원키트를, 취약계층에게는 생필품키트를 전달한다. 지난 4월 17일 홍성의료원 내 선별진료소에 처음으로 키트를 전달했다. 앞으로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전북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5억 원 지원

지난 4월 10일 전북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5억 원을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에 전달했다. 지원금은 특별 모금 2억 5,000만 원을 비롯해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공동 모금 2,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 지원금 2억 3,000만 원을 모아 마련했다. 이 성금은 도내 14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기관 1,100여 개소에 소독약·소독기·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으로 지원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성금 5,000만 원 기탁

전면적 미사 중단 등 모범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중인 천주교 전주교구가 지난 4월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쾌척했다. 이번 성금은 전주교구 사제들이 생활비를 아껴 마련한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절제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성직자들의 모습은 타의 귀감이 되었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도내 어려운 이웃 등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면서 사제들이 성금을 마련한 취지를 전했다.

전남



**전라남도의회, 대구·경북 지역 지원 성금 전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가 성금 645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의 뜻을 담아 도의원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모금이다. 전달받은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취약 계층 대상의 복지시설과 의료진 지원 등에 사용했다.



**수협전남조합장협의회, 방역 마스크 기증**

지난 4월 1일 전남 지역 수협전남조합장협의회가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김석환 수협전남조합장협의회장(거문도 수협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장들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증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려운 계층에 전달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기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 290호



김준면 엑소 멤버 수호

“보내주신 많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눔이란 너도나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이고 행복입니다.”

서울 288호



이영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같이 사는 것.”

서울 290호



김종길 (주)제이씨디 대표이사

“비움과 채움으로 완성하는 행복입니다.  
소중하다는 생각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비우니 그보다 더 나은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 140호



황지연 와이비미디어 대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 많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결심을 나눔으로써 지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전북 65호



한수일 탐플랜트 치과 대표원장

“지역과 사회에서 받은 많은 것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 정봉순
- 경기 윤성욱 그레이스치과의원 대표원장
- 경남 위호철 주식회사 울곡 대표 윤영호 호텔인터내셔널 대표
- 충남 고삼숙 굴다리식품 대표 정천진 육교훈련소 대위
- 대구 김수연 류태하 다인산업개발 대표

##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 지난호 독자 의견

20여 년간 공임비 전액을 기부해온 원일대장간 이승태 대표님의 기사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포근해서 좋습니다. 대장간 일을 하기 전까지 우여곡절 많은 사연도 있었고, 사업에 실패해 깊은 좌절을 맞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대표님의 모습에 저도 작은 것부터 나눔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유가 있어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해야 비로소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는 이승태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마음만이 아닌 행동으로 오늘, 지금,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 박태규 인천시 연수구



사랑의열매의 정보기술 격차 지원 사업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 등 정보기술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조차 힘들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랑의열매, 정말 고맙습니다! 건축, 여행분야 등의 새로운 트렌드인 무장애(barrier-free)에 대한 내용도 실어주세요. 휠체어를 타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나 여행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광송호 경북 경산시



나눔 이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때 기부 행렬에 동참한 스타들이 있었고, 기업과 기관, 나아가 전 국민이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꼭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 강영숙 인천시 부평구



###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안마봉

###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http://www.chest.or.kr)

모두에게 봄이 올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나눔의 꽃을  
피워가겠습니다.



2019년 **5,958억 원**으로  
28,870개의 기관과  
**457,988명**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 사랑의열매는 모두를 돕습니다



**사업분야**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합니다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